

HPAI 차단, 예방이 최선이다



▲ 김용상 사무관

1990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2001 서울대학교대학원 수의학 박사
1990 국립동물검역소 서울지소(본소 정밀검사과)
1992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1995 국립동물검역소 본소 국제검역정보과
1998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축산물위생과
2004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팀 파견
2005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 파견
2007.7-현재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AI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2월말로 종료된다. 정부에서는 철새가 떠난 이후에도 분변에 남아있는 균이 장기간 생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본고는 양계질병과 방역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용상 사무관을 만나 AI 질병방역 대책 추진현황과 양계질병 방역 구상을 들어보았다.

예방이 방역의 최우선

김용상 사무관은 지난 1990년 관직에 들어온 이후 국립동물검역소, 농림부 등을 거치며 검역, 동물약품, 위생, 해외업무 등 다방면의 일을 맡으며 실무능력을 넓혀갔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2년간의 뉴질랜드 파견(식품안전청)을 마치고 돌아와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에서 양계관련 질병 및 방역, 동물약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처음 업무를 접할 때 양계업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터이고 다가올 겨울철에 대비하여 더 이상

AI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가섰다. 김용상 사무관은 양계인들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방역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질병 방역 대책이 AI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조기종식 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방역업무를 추진하였다.

AI특별 방역기간이 설정되기 전부터 생산자 단체, 방역지원본부 등과 연계하여 농가홍보에 열정을 쏟았고 ‘차단방역’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무사히 AI가 없는 해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다.

김용상 사무관은 농가들의 방역 의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며,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에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양계농가의 방역시설이 아직까지 허술한 곳이 많아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김용상 사무관은 방역정책을 펼 때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을 잘 세우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최근 양계질병의 당면현안으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제정에 앞서 종계장, 육계장 및 백세미 사육농장 등을 두루 살피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김 사무관은 금년에는 백세미에 대해 방역상 나



▲ 김용상 사무관(우)은 농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타나는 문제를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백세미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방역의 개념도 없이 정말 열악하게 생산하는 현장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계가 축산법에 종계로 규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고 방역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추진키로 하였다. “백세미 시장은 1년에 1억수가 넘게 생산되는 등 산업화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상으로는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계에 백신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생균백신만을 허용하되 검사를 철저히 하여 가금티푸스에 감염된 계균은 백세미 생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종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과거 HACCP 기준마련, 동물약품법 전면개정에 직접 참여했던 김용상 사무관은 양계 질병과 방역업무에 있어서도 농가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꿈꿔갈 것을 약속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